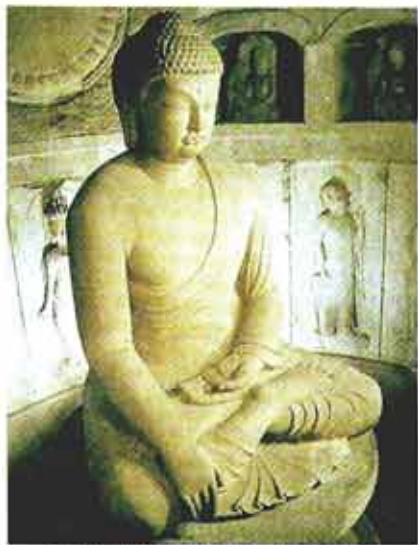


# 진리세계 가리키는 제2의 언어



◁항마촉지안을 취하고 있는 석굴암 본존불.



◁프랑스 국립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존유일의 고려 천수관음보살상.



◁국보 제39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오른쪽 불에 살짝 대고있는 손가락이 길은 신통에 든 미륵보살의 모습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다.

##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 손

세계의 공통언어가 서로 손을 맞잡는 악수이다. 손을 활짝 펴고 내보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평화와 우정과 믿음의 제스처이다. 소리를 잃은 이들에게 수화라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손주의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의 악수, 정한수를 떠놓고 가족의 무병장수와 복을 간절히 비는 어머니의 손 등 손은 감정,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제2의 언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달’** 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불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던지는 파궤한 일침이다. 두 손을 마주대는 ‘합장’은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불자들의 인사법’이다. 천수관음의 천개의 손은 일체중생의 고통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지비심의 표현이다. 불·보살이 깨달아 얻은 것(內證) 자기의 행세(本質), 서원 등을 손의 위치나 손가락의 맺음으로 표현한 것이 수인(手印)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시무외인이나 선정인,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고 아미타부처님은 구공인을 취하고 있으며 비로자나부처님은 지권인을 취하고 있듯 수인은 불보살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합장**  
합장은 원래 고대 인도 사람들의 인사법의 하나였다.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는 인도 사람들의 아홉가지 절하는 방법 중에 불자들은 합장을 경례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합장은 곧 이것과 자정이 하나이고,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고, 선과 악이 하나이며, 너와 내가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관음의소·觀音義疏》에 의하면 ‘손이란 본래 두 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합쳐 하나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산만하고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각하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며 한마음이 서로 맞닿는 깨달음 이것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합장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원한



◁너와 내가 하나임을 상징하여 한마음으로 하는 합장은 공경의 표시이다.



◁차수를 한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는 비구니스님들.

## 관음보살 천개의 손으로 중생 돌봐

**합 장 모두 돌아닌 근본경지 상징 일지두선 손가락 세워 대오각성 유도**

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방편도 아니고 실상도 아닌, 현실과 진리가 완전히 합치된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깨달음 두 손을 합치는 것이라고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 차수**  
절에 가면 차수(叉手)라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다녀야 한다. 차수는 두 손을 자연스럽게 마주잡는 것이다.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싸는 자세

가 안락한데 오른손을 왼손으로 쥐어도 상관없다. 오랜 법문을 들을 때나 스님 앞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법당의 경내를 걸을 때 차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수는 자찰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세이다.

**■ 천수관음**  
손은 또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에서 그 불법의 극치를 이룬다. 천수관음은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최대한

강조한 모습의 표현이다. 《천수경》에 의하면 천수관음보살은 과거세에서 비래세의 일체중생을 구제한다는(대비심다라니)를 듣고 천수천안이 생기길 발원했다. 이러한 발원으로 천수천안이 된 관음보살은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고 천개의 손으로 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하여 ‘대비관음’으로도 불렸다.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 사십수천안이 있다. 사십수천 관음보살의 마흔개의 손을 말하는데 감로수(甘露手), 총섭반수(總攝千手)가 다하면 사십이수를 가진 관음은 사십이수천안이라 불린다. 신라 향가 ‘도천수관음개축千手觀音歌’는 천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에게 두 손을 모아 공명을 기구하는 내용이다.

### 수인

수인(手印)은 손의 위치로 불·보살들이 어떤 상태나 행동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약속이다. 수인은 모든 불상에 사용되는 통인(通印)과 한 불상에만 쓰는 별인(別印)으로 구별된다. 선정인 여원인 시무외인인 통인, 항마촉지인 초전법륜인 천지인 등은 석가모니불의 별인, 9품인은 아미타불, 지권인은 비로자나불, 악기인은 악사불의 별인이다. △선정인(禪定印): 참선할 때 짓는 수인. 석가모니부처님이 수도할 때 짓던 손가락이다. △여원인(與願印):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즉 자비를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수인이다. △시무외인(施無畏印):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상징.



## 불보살의 깨달음이나 서원 손위치 또는 맺음으로 표현

△삼불상생인(三佛相生印): 중생에게 법을 설하고 있음을 알리는 수인. 손가락으로 만든 동그라미는 법의 바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지상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때 지은 수인. △전법륜인(轉法輪印): 법을 설하

고 정도함을 나타내는 수인. 보편적인 전법륜인은 지권인과 유사한 모양이다. △천지인(天地印):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떼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는 모습을 담은 탄생불의 수인.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 선정인에서 약간 변화된 것으로 두 손을 배 쪽에 가까운 다리 위에 올려 놓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다른 손가락은 펴서 서로 깎지간 모양이다. △구공인(九功印): 중생을 근기에 따라 아홉가지로 나눠 각자 근기에 맞는 설법을 펼치는 아미타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수인. 삼불상생인, 삼공중생인, 삼공해생인, 중공상생인, 중공중생인, 하공해생인, 하공상생인, 하공중생인, 하공해생인의 아홉가지. △지권인(智拳印): 비로자나부처님 즉 대일여래의 별인으로 이(理)와 지(智), 중생(衆生)과 불(佛), 미(迷)와 오(悟)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수인을 통해서 진리를 즉시 깨우치게(即身成佛) 하려는 것이다. △악기인(樂器印): 악사부처님의 별인으로 병마를 없애기 위해 악사부처님이 왼손에 악기를 들고 오른손은 무릎에 얹은 모양이다.

**■ 일지두선(一指頭禪)**  
‘한마디 하시면 방장을 뱉겠소.’ 미조선세의 제자 신태석님의 이 말씀에 대답을 못한 구지스님은 훗날 천룡화상에 이 뜻을 물었다. 몸을 받은 천룡화상은 단번에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고 그 순간 스님은 대오각성했다. 이후 구지스님은 도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 하나를 세워보였고 그의 일지두선(一指頭禪)은 선객들 사이에 유명하게 되었다. 구지스님이 세웠던 손가락은 이미 손가락이 아닌 불법에 닮았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지두선은 이로 끝나지 않는다. 후일 스님을 모시는 사미승이 외출했다가 구지스님은 어떤 법을 설하는가는 질문에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였고, 그 상황을 사미승으로부터 들은 스님은 단번에 사미의 손가락을 잘라 버렸다. 아들이 놀라 도망가면 사미는 스님의 부름에 뒤를 돌아본 순간 다시 손가락을 들어보라 구지스님께 외벽 크게 깨우쳤다는 이야기이다. 강지연 기자 (rygang@buddhania.com)

##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餓鬼)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석가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孝(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리의大本(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전대사가 권장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지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 국(國: 나라를 다스림), 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 둘째 부(富: 부와 귀), 셋째 강녕(康寧: 편안함), 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 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지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길이 좋은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지신(治身) 자연건강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망장산(망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물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지(검은 개)와 감초로 10여종의 허가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부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환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정생물시어면서 신에 사는 시령의 신선(山仙)의 주액(主液)은 시계절에 무른 소나무(소나무)의 불린 싹은 이때 알로 다 할 수 있으나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므로 불을 생(生)어기(五行相生의 수생화생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 五行的 木)의 나라의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람 및 인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얻는 여러천(천)의 자연건강식품회사들 경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의음정주(東海主人)가 참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음·솔수·솔해방·솔미디·솔황기루·솔진·솔근백피·솔목피·솔이버섯·백령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가(精液) 당아린 조선평소나무의 알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향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갈라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늦게 하여 병의 예방도 하여 정액(精液)·기(氣)·신(神)에 양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건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갈라 없애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알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이다.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열매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의 특효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을 날려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삼장, 황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건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8.57798호, 『솔선식』 98.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의학학위를 할 예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8호

**솔선식(松仙食)**  
원액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